



코로나19 딛고 '비밀의 숲' 열린다

2022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사전 예약 없이 행사 기간 상시 탐방 가능 5일 동안만 걸을 수 있는 '용암길'도 개방 가수 신효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탐방할 수 없는 '제주 거문오름'을 상시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코로나19를 딛고 3년 만에 '세계자연유산 제주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이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9일간 개최되기 때문이다.

▶ 거문오름의 가치=거문오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반열에 오른 곳으로 제주 시 조천읍 선홍2리에 위치해 있다. 거문오름은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보유한 곳으로, 만장굴과 김녕굴, 웅천동굴, 당처물동굴, 뱅뒤굴 등 제주의 대표적 용암동굴의 시발점이다.

아울러 거문오름이라는 이름은 분화구 내부의 울창한 수림이 검은색으로 음산한 기운을 띠고 있어 '신령스러운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지질 및 생태 자원을 간직한 것은 물론 숯가마터와 일제강점기 경도진지와 주둔지, 4·3유적지 등 제주의 역사·문화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 1년에 딱 '5일만'=2008년 이후 매년 열렸던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은 코로나19가 극성이던 2020년과 2021년은 취소됐다. 2년 동안 행사가 열리지 않으면서 거문오름은

사전예약제와 주1회 '자연휴식일'을 운영해 탐방객을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행사가 열리는 5일 동안은 사전에 예약 없이 탐방안내소에서 출입증과 간단한 탐방 수칙만 교육 받으면 신령스러운 공간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다. 다만 취사행위와 산나물과 꽃, 나무 등 일체의 채집행위가 금지되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등산용 스틱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은 해를 거듭할 수록 품격높은 탐방코스도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08년 1회 행사 당시 A·B코스로 불렸던 탐방로는 이듬해부터 A코스는 '태극길', B코스는 '용암길'이라는 이름을 달고 운영됐다.

▶ 지금 아니면 못 걷는 '용암길'=행사 기간에는 비밀의 숲이라 불리는 용암길이 열린다. 용암길은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내려 만들어진 진 길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다.

코스는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탐방안내소에서 출발해 거문오름 정상상을 지나 상록수림, 뱅뒤굴 입구, 흐린대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약 6km 코스로 짜여져 있다. 탐방하

는 데는 약 3시간이 소요된다. 탐방 중에는 양치식물 60여종과 희귀한 식나무와 붓순나무 등 300여종의 식생을 만끽할 수 있다. 또 과거 제주인의 생활상을 가능할 수 있는 숯가마 터와 일본군 경도진지, 천연기념물 490호 뱅뒤굴도 볼 수 있다. 다만 뱅뒤굴은 보호를 위해 개방되지 않는다.

용암길과 함께 운영되는 '태극길'도 거문오름의 매력을 잘 만끽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다. 태극길은 탐방로가 '태극' 문양을 형상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탐방안내소에서 출발, 용암협곡, 알오름전망대, 숯가마터, 화산탄, 수직동굴 등 거문오름 분화구를 먼저 둘러본 뒤 9개 봉우리 능선을 돌게 된다.

탐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탐방안내소에서 사전안내와 출입증을 받아야 입장이 가능하다.

▶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거문오름 국제트레킹 기간에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8일 개막식에는 오전 7시30분 기원제를 시작으로 거문오름 풍물단 김놀이 공연, 가수 신효범의 특별공연이 이어진다. 토요일인 30일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선인분교 풍물공연, 가수 김나연과 제제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다음날에는 오경실 한국무용단, 제주피연, 제주전통예술단·온세미로의 공연이 펼쳐진다. 아울러 행사 기간에는 zip트리 스킨과 천연벌레퇴치제 만들기, 자연만화경 만들기, 부상 예방을 위한 스포츠테이핑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영화觀

아름답고 희생하지 않는 엄마에 대해

나는 고양이 두 마리를 입양해 5년째 한 식구로 지내고 있다. 내가 선택한 고양이와 함께 사는 일은 자주 행복하고 종종 골치 아팠으며 가끔은 힘에 부쳤다. 우리는 함께 잠들고 따로 깨어났으며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관계였다. 우리 사이에 사랑이 커져가는 순간들 틈에 다른 감정들도 함께 자라났다. 배우 매기 질렌탈의 감독 데뷔작 '로스트 도터'는 모성이라는 수갑과 욕망이라는 열쇠를 함께 지닌 여성들의 이야기다. 임신과 출산, 육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나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아름답고 희생하지 않는 엄마에 대하여'라는 '로스트 도터'의 홍보 문구는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오래 되고 무딘 관성을 파고드는 이 뻘컘하고 눈부신 영화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영화 '로스트 도터'.

'로스트 도터'의 주인공 레다는 그리스의 아름다운 휴양지를 찾은 중년의 교수다. 그녀는 홀로 찾은 휴가지에서 책을 읽으며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한 무리의 대가족이 그녀의 앞에 나타나 해변을 가득 채운다. 그리고 대가족의 일원 중에서 청일대는 어린 딸을 데리고 있는 젊은 여성 니나가 자꾸만 레다의 눈에 밟힌다. 휴양지에서 레다는 종종 사소한 불안의 징조들을 마주친다. 그리고 그 불안들을 데리고 온다. 딸들을 버리고 가족을 감행했던 엄마 레다는 모성이라는 낯고 무거운 수갑을 번쩍이던 욕망의 열쇠로 열어버린 적이 있다. 엄마라는 이름 앞에 삶의 많은 것이 무력화되어 무너지던 지점에서 레다는 자신의 의무 대신 욕망을 선택한 경험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면 아래 있던 레다의 죄책감과 상처가 니나라는

나를 닮은 누군가를 통해 휴양지의 해변으로 올라와 서걱거리는 마찰음을 내기 시작한다.

'로스트 도터'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극 중 인물들은 물론이고 관객들에게 연이여 던지는 영화다. 모성이란 무엇인가, 모성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이상과 현실 사이 우리는 어디쯤에서 파도치고 있는가. 어느새 레다와 니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성을 강요당하는 압박감과 나를 나로 만드는 꿈과 감정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 불안한 눈빛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던 그들은 끝내 입을 열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다. '이런 감정들이 지나가냐'고 묻는 니나를 보며 레다는 '지나가지 않는 감정들도 있다'고 답한다. '로스트 도터'는 여름의 휴양지라는 일견 평화롭게 보이는 공간에서 완전무결이라는 불가능한 모성 신화의 환상성과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실체를 다양한 각도로 들여다보는 영화다. 마치 먼지 쌓인 귀금속을 닦아내듯이, 썩은 과일의 밑부분을 도려내듯이 그렇게, 그리고 불가능함과 불안정함이야말로 완전한 사랑과 충만한 욕망의 불가역성일지도 모른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부 지원사업 잔여예산 신청자 모집

신청 자격 **제주시 노형동, 연동, 해안동 소재 상업용 건물 소유자**

호텔, 사우나, 공장, 병원, 마트, 창고, 냉장/냉동시설, 식당, 학원, 종교시설 등 **전기다소비 시설 우대**



설치비용 75% 무상지원

- 고효율 최신 기자재 설치
- 전기요금 절감효과 탁월
- 경제수명 30년 성능보증



설치사례 : 서울사우나 태양광99kW



설치비용 95% 무상지원

대상 : 도시가스 사용건물

- 전기 생산 및 온수생산
- 전기요금 및 급탕 연료비 절감
- 제주국제공항, 드림타워 운영중

모집기간: **예산 소진시 까지**

정부 지원사업 상담/접수

제주슬라에너지(주)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5전담기업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정부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